즉시 배포용: 2019년 11월 2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ANDREW M. CUOMO 주지사. 전자담배 관련 질병으로 인한 뉴욕주 두 번째 사망에 대한 성명서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는 뉴욕에서 두 번째로 전자담배와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맨해튼 출신 30대 남성 사망자의 전자담배와 담배 제품 사용 이력이 보고되었습니다. 조사 및 의료 기록 검토를 바탕으로 보건부(DOH)는 사망이 전자담배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보건부(DOH)는 이러한 질병의 원인에 대해 강력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나, 전자 담배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는 변함없습니다. 무엇을 피우고 있는지 잘 모른다면, 피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 차원에서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연방 정부도 지금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Trump 대통령은 이러한 맛이 십 대 및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데 사용된다는 광범위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부분의 가향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본인의 서약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전자담배 산업의 이익을 미국인의 삶보다 우선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거대 담배 회사(Big Tobacco)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공중 보건 위기이며, 워싱턴의 '지도자들'이 이를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할 때까지 더 많은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